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계시와 인간의 주관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2부 '현대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와 인간의 주관성'. 바로 다음이 제7장이므로 제6장으로 보인다. 원문 쪽 표시 기준으로 100–105쪽을 포함하며, 시작 쪽은 99쪽 무렵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들의 정리에서 출발한다. 현대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인간 이성이나 역사를 앉혔고, 이 장은 그 셋째 길인 '감정·체험'을 다룬다. 먼저 슐라이어마허가 계시를 마음속 종교 감정으로 옮긴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감정이든 이성이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아래 서기를 거부하는 '자율성'이라고 진단한다. 그다음 같은 노선에 선 키에르케고르, 브루너, 바르트를 하나씩 성경으로 검토한다. 그러고 나서 개혁신학도 주관적 요소를 인정하되 그것을 '객관적 계시에 대한 성령의 조명'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보인다. 계시를 객관적 계시, 불신앙으로 받은 계시, 믿음으로 받은 계시의 셋으로 나눈 뒤, 주관만 남기면 “믿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 — 이성과 역사에 이어 '마음'으로: 슐라이어마허

프레임은 앞에서 살핀 내용을 다시 짚는다. 현대신학자들은 진리를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에서 인간 이성으로 바꾸었다. 일부는 말씀보다 역사에서 계시를 찾았는데, 역사가 성경에서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율적 사고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길은 계시를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이 길의 대표가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어마허다. 그는 스피노자나 칸트 같은 합리주의가 종교의 고유한 성격을 담지

하나님이 '내가 기대고 있다고 느끼는 실재'의 이름이고, 기독교는 그 실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며, 신학은 그 감정을 말로 옮긴 것이다. 감정이 먼저이고 성경과 신학은 뒤따르는 표현이 되므로, 계시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반응이 된다.

1. 앞 장: 말씀 대신 이성·역사를 기준으로 삼음
2. 이 장: 셋째 대체물인 '마음속 감정'을 다룸
3. 슐라이어마허: 종교의 뿌리는 절대의존감정
4. 감정이 먼저, 성경과 신학은 이차적 표현
5. 결국 종교 의식이 성경의 역사를 해석함

> **(이 절에는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이 없음)**
> —

📜 2. 감정도 자율이다 — 진짜 쟁점은 '누가 판단하는가'

프레임은 슐라이어마허가 말처럼 이성을 떠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의 방대한 저작은 감정을 쏟아 낸 글이 아니라 종교 감정을 이성으로 분석한 글이다. 게다가 그는 이성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려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체계는 자율적 이성이 해석한 자율적 감정이다. 여기서 자율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아래 서지 않고 스스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계시를 감정에 가둔 이유가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종속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었다는 의심도 있다고 프레임은 전한다. 프레임은 감정과 이성이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고 본다. 감정은 주어진 자료에 맞게 혹은 어긋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추론이다. 반대로 이성적 확신은 프레임이 다른 책에서 '인지적 쉼'이라 부른 일종의 느낌이다. 감정은 더 즉흥적이고 추론은 더 공을 들인다는 차이는 있지만,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성에서 감정으로 옮겨 간 것은 큰 이동이 아니다. 역사를 계시로 본 신학자들도 다르지 않다. 리츨과 판넨베르크의 역사는 자율적 이성이 재구성한 역사이고, 쿨만의 역사는 주관적 신앙에 잘 맞춰지는 자료다. 합리주의, 역사주의, 주관주의는 모두 자율적 인간 사유의 세 얼굴이며, 어느 것도 하나님의

1. 슐라이어마허의 글도 감정에 대한 이성적 분석
2. 이성을 말씀 아래 두려는 뜻이 전혀 없음
3. 감정은 일종의 추론, 확신은 '인지적 쉼'
4. 쟁점은 이성 대 감정이 아니라 자율 대 순종
5. 합리·역사·주관주의는 자율적 사유의 세 얼굴

> **(이 절에는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이 없음)**
> —

📜 3. 주관주의의 후계자들 — 키에르케고르, 브루너, 바르트

슐라이어마허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프레임은 최근의 대표자들을 살핀다. 키에르케고르(1813–1855)는 성경에 객관적 계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주관적 반응이 성경에 대한 객관적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다. 브루너(1889–1966)는 슐라이어마허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도 부버와 에브너를 따라, 가장 높은 의미의 계시는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만남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말을 쓰는 순간 비인격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실 지식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을 해치고, 계시는 담화나 기록과 같을 수 없다고 보았다. 바르트는 다음 장에서 다룰 다른 강조점이 있지만, 그 역시 어떤 단계에서는 계시를 인간의 주관성과 겹쳐 본다. 바르트에게 성경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과거에 들은 기억과 다시 들을 소망만 가진다.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말씀을 다루고 조종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권을 잃는다고 그는 염려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문서이고, 그 오류 여부는 신앙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류 있는 본문도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최근 바르트 연구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강조한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그 '이다'도 결국 말씀이 '될 수 있는 능력'에 불과하므로 결과는 같다고 답한다. 두 해석 모두 하나님이 특별히 그 본문으로 말씀하시기로 택하신 경우가 아니면, 성경의 말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으로 받을 근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브루너: 계시는 만남, 말과 사실은 만남을 해침
3. 바르트: 성경은 말씀이 '될' 때 말씀
4. 바르트: 말씀은 소유 못 함, 본문 오류는 무관
5. 최근 바르트 해석도 결과는 같다고 프레임은 봄

> **(이 절은 세 사람의 견해 소개이며 성경 인용 없음)**
> —

📜 4. 프레임의 답 — 보존되는 말씀, 지켜지는 주권

프레임은 세 사람에게 정도를 달리해 답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는 덴마크 루터교 국교회의 '죽은 정통'과 씨름하며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경험이 중요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객관과 주관을 맞세움으로써 성경이 하나로 묶어 둔 것을 떼어 놓았다. 성경에서 주관적 지식은 객관적 계시를 성령이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바로 그 조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살아 있는 관계로 이끈다. 브루너에게는 공감이 덜하다. 사실 지식이 관계를 해친다는 주장은 사람 사이에서도 맞지 않는다. 드러난 사실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는 일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상대를 더 알수록 우정이 깊어진다. 성경도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행하심을 아는 것이 그분과의 우정을 떨어뜨린다고 암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한다. 바르트의 '되어 감' 개념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기를 기대하신다.
계시는 번쩍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보존된다. 그렇다고 객관적 보존이 하나님의 주권을 약하게 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언약 백성이 가진 법령이자 하나님 주권의 직접 표현이며, 계시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조작으로부터 보호된다.

1. 키에르케고르의 '살아 있는 신앙' 강조엔 공감
2. 성경은 객관 계시와 주관 조명을 하나로 묶음
3. 사실을 알수록 우정은 대개 깊어진다

시편 78:1-8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도록 보존된다

[1]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

신명기 10:5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신명기 31:10-13

율법을 정해진 때마다 백성 앞에서 반복해 읽게 하셨다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유다서 1:3

사도의 복음은 단번에 주어진 것으로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계시의 객관성은 정확하게 인간적 조종으로부터 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 5. 개혁신학의 주관적 요소 — 성령의 조명

정통 개혁신학도 계시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다르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창조와 성경 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신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지 않으시면 객관적 계시도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눌러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개혁신학에도 “성령의 일로 주관화될 때까지 계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프레임은 이 주제를 책 뒷부분(41–44장)에서 다룬다고 각주로 밝힌다. 프레임은 '공표되었다'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예를 든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정부 예산은 '공표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 이론은 공개된 것이다. 로마서 1장의 자연계시도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런 객관적 공표다. 반대로 중국의 곡물 가격은 모두가 알지만 나는 모른다.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알려졌어도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의 계시는 이 둘 다에 해당한다. 바울은 그 계시를 모르는 사람을 상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1. 개혁신학에도 주관적 요소가 있다
2. 객관 계시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열매가 없음
3. 죄인은 계시를 억누르므로 중생이 필요
4. '공표'에는 객관적 공표와 실제 앎이 있다
5. 로마서 1장의 계시는 객관이자 주관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억누르며, 자연계시는 반응과 상관없이 분명하다

로마서 1장 [1]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로마서 1:21

모든 사람이 계시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 — 주관적 측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6. 계시의 세 종류

프레임은 한 가지 구분을 더 덧붙인다. 같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다. 로마서 1장의 이교도는 진리를 막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쪽으로 반응한다. 반면 마태복음 11:27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하고 구원하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앎, 곧 믿음의 지식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에도 같은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계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계시, 불신앙으로 받은 주관적 계시, 믿음으로 받은 주관적 계시다.

1. 같은 계시에도 반응은 둘로 갈린다
2. 불신앙: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꿈
3. 믿음: 아들이 주시는 그의 앎

5. 객관 / 불신앙의 주관 / 믿음의 주관

로마서 1장 (장 단위 인용)

불신앙의 반응: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꿈

로마서 1장 [1]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마태복음 11:27

믿음으로 받는 주관적 계시: 아들이 알게 하시는 구원의 앎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1:17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 — 같은 뜻의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 7. '주관적 선회'와 그 대가 — 사라지는 의무

슐라이어마허 이후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이 알아차리기 전에는 계시가 없다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 프레임은 이것을 계시론 역사의 '주관적 선회'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연과 성경 안에 '그냥 거기 있는' 객관적 계시를 낯게 보았다. 나아가 믿음으로

결국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쪽(보편구원론적 경향)으로 기울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세 종류 계시를 모두 말하며, 셋 다 중요하다. 객관적 계시는 실제로 있고, 믿어야 할 의무를 만든다. 로마서 1:20은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부정의 말로 표현한다. 불신앙으로 받은 계시는 진리를 분명히 보고도 억누르는 인간의 부패를 보여 준다. 믿음으로 받은 계시는 아버지와 친구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하심을 보여 준다. 주관만 남긴 슐라이어마허의 전통은 권위에 따르는 '의무'를 잃는다. 바르트도 그리스도 안의 계시를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객관적 진리로 표현될 수 없는 주관적 사건이라고 본다(각주).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다.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사건은 이미, 그리고 영원히 계시된 말씀과 복음을 비추시는 일이다. 모든 참된 소통에는 객관적 면(내용과 전달)과 주관적 면(듣기와 반응)이 함께 있다. 자유주의는 객관적 면을 지워서 말씀의 권위를 피하고, 자율적 이성이 말씀을 심판하게 했다. 신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관적 선회: 사람이 알아야만 계시라는 생각
2. 거부한 자를 '못 받은 자'로 보게 만듦
3. 객관 계시는 믿어야 할 의무를 만든다
4. 주관만 남기면 권위와 의무가 사라진다
5. 성령의 현재 사역은 이미 주신 말씀을 비춤

> **로마서 1장 (장 단위 인용)**
>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계시를 받고도 거부한 사람이다
>
> **로마서 1장** [1]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이르렀다 — 이미 주신 말씀의 조명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일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계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이다.

객관적 / 주관적

내가 알든 모르든 '거기 있는 것'이 객관이고, 내 안에서 알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주관이다.

자율성
하나님 말씀 아래 서지 않고 내 이성이나 감정이 스스로 최종 기준이 되려는 태도다.

절대의존감정
슐라이어마허의 말로, 무언가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다는 마음 깊은 곳의 직관이다. 그는 이것을 종교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인지적 쉼
프레임의 말로, 충분히 따져 본 끝에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이 확신 속에 쉬는 상태다.

조명
성령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일이다.

중생
성령이 죄로 죽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일이다.

자연계시
창조된 세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다(로마서 1장).

주관적 선회
프레임의 표현으로, 계시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사람이 받아들인 것'으로 옮겨 버린 현대신학의 방향 전환이다.

죽은 정통
교리는 바르게 붙들지만 살아 있는 믿음과 경건이 사라진 상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이 장의 결론

- 계시를 감정·체험으로 옮긴 주관주의는 이성이나 역사로 옮긴 길과 뿌리가 같다. 모두 하나님 말씀 아래 서지 않으려는 자율성이다.
- 성경에서 계시는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보존되고 소유되는 말씀이며, 그 객관성이 오히려 계시를 인간의 조작에서 지킨다.
- 개혁신학도 주관적 요소를 인정한다. 다만 그것은 이미 주신 말씀을 성령이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 계시는 객관적 계시, 불신앙으로 받은 계시, 믿음으로 받은 계시로 나뉘고, 셋 모두 중요하다.
- 객관을 지우면 '믿어야 할 의무'가 사라지고, 결국 인간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게 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